위기의 양봉산업

밀원수 줄어 흉작…정부 팔짱만

천연 에너지원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즐겁게 하는 벌꿀. 하지만 농가들은 양봉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됐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004년 대흉작이 올해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될 경우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농림부 등 농정당국에서는 양봉산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과소평가된 양봉산업=양봉산업의 생산액은 연간 2,000억원가량. 하지만 꿀벌의 화분 매개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는 그 몇 배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양봉농협(조합장 조상균)에 따르면 시설원예에 20만군의 벌통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의 20만 과수 농가는 꿀벌에 의한 간접적 화분 매개 효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 꿀벌을 통한 수분 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국의 산과 들에서 활동하는 꿀벌의 화분 매개를 통한 자연환경 관리와 보전가치도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밖에도 양봉은 화장품과 의약품 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밀납과 화분, 봉독(벌침)을 제공하는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쥐꼬리만한 정부 지원=양봉산업이 가진 경제적 가치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크게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2004년 사상 유례가 없는 대흉작이 발생하자 양봉농가에 경영안정자금과 밀원수 조성 등을 일부 지원한 것이 전부다.
더구나 양봉농가는 4만여 가구로 한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소 · 돼지 · 닭 등 주요 가축에 밀려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양봉농가의 불만이다.

◆깊어가는 농가 시름=2002년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아카시나무 잎 황화현성과 이에 따른 연이은 흉작은 농가에 큰 시련을 주고 있다.
최규칠 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은 "해마다 황화현상으로 인해 아카시나무가 10~20% 고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봉농협과 공동으로 조성한 1억 5,000만원으로 황화현상의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여기에다 미국산 천연꿀의 관세를 대폭 낮추게 될 한 · 미FTA도 농가들에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시급한 밀원수 조성=아카시나무의 황화현상에 대한 적절한 방제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5년 내에 밀원수는 고갈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농가들은 정부의 조림사업이 목재 가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밀원수로서의 가치가 큰 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임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가치는 약 1,000억원으로 양봉산물 생산액의 절반가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국유지나 공유지에 현재처럼 17만㏊규모의 밀원수가 또 하나 조성되면 안정적 벌꿀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새로운 밀원수를 조성할 경우 헛개나무와 음나무 등 6월과 7월, 8월에도 채밀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하고, 특히 국유지 조림사업에 있어 밀원수를 의무적으로 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6. 07. 14 / 농민신문 -

한우·양봉 업계 손 잡았다

한우업계와 양봉업계가 손을 잡았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최근 양봉업계의 밀원수 부족 문제 해결과 더불어 농장 환경개선을 위해 신청을 받아 농장 주위에 헛개나무, 엄나무 등의 밀원수를 심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협회 회원농가들은 8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50%의 정부 보조로 농가부담금은 그루당 헛개나무 350원, 엄나무는 680원이다.
축산업계에서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계 내부의 win-win 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양봉협회(회장 전기현) 관계자는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이때 밀원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와 양축농가들이 함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2006. 7. 3 / 축산신문 -